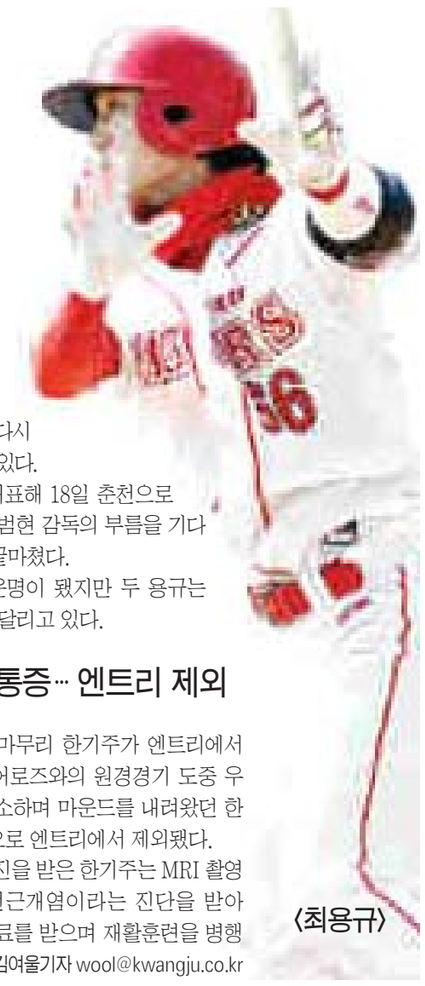
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틱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이용규〉

엇갈리기만 하는 KIA 85년 동갑내기 '두 용규'

"우린 한 무대서 뛰고 싶다"


〈최용규〉

이용규 1군 복귀, 최용규 2군 올스타전 참가

더 큰 무대를 꿈꾸는 프로야구 2군 퓨처스 올스타전이 18일 춘천 의암야구장에서 열린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투수 전태현과 포수 백용환 외야수 이명환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최용규가 올스타전 참가의 영예를 안았다.

4명의 선수 중 올 시즌 1군 무대를 밟아본 선수는 백용환과 최용규 두 명. 2008년 1차지명인 전태현은 올 시즌 아직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2군 4번 타자로 남부리그 홈런 2위(9개)를 달리고 있는 이명환은 신고선수 신분이다. 백용환도 하루 1군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그나마 최용규는 1군 무대에서 51경기에 출전하며 가장 팬들에게 친숙하다. 57타수 14안타로 0.259의 타율을 올린 최용규는 홈런도 1개를 기록했다. 내야수 최용규는 올 시즌 외야진들의 줄부상 속에 외야수로의 변신까지 감행했다. 난생 처음 외야글러브를 끼고 외야의 공백을 메웠던 최용규는 1루수로도 등장하는 등 내·외야를 오가며 팀의 궂은 일을 도맡았다.

그러나 연습과 실전과는 다른 타구를 쫓느라 공의 방향을 놓치기도 하고, 잘 해야한다는 부담감으로 본인의 스윙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

결국 최용규는 불안한 외야 수비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타격 때문에 2군으로 내려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초짜 외야수 최용규는 동명이인 이용규와 비교대상이 되면서 속앓이를 했다.

고졸 6년차 '날쌘돌이' 이용규가 한국무대는 물론 WBC를 통해 세계 무대까지 휩쓴 것에 반해 대졸인 최용규는 이제 프로 두 번째 해를 맡은 신인급선수다.

최용규와 이용규는 85년 동갑내기 친구다. 지난해 미야자키 전지훈련에서 한 방을 썼던 '두 용규'는 나란히 테이블 세터로 나서는 목표를 세우고 함께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용규가 전지훈련 조에서 제외되면서 따로 훈련을 했다. 개막 엔트리에 두 용규가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이용규가 개막 3경기 만에 오른쪽 복숭아뼈 골절로 재활군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지난 7월10일 한화와의 2군 경기에서 최용규와 이용규가 1·2번 타자로 나서면서 마침내 테이블 세터로 나란히 섰다.

최용규는 홈런과 도루를 하나씩 기록했고, 이날 2군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이용규도 세 번째 타석만에 안타를 때려내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두 용규는 다시 각기 다른 짐을 싸고 있다.

최용규는 2군을 대표해 18일 춘천으로 향하고, 이용규는 조범현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며 1군행 준비를 끝마쳤다.

또 다시 엇갈린 운명이 됐지만 두 용규는 같은 무대를 꿈꾸며 달리고 있다.

한기주 어깨통증… 엔트리 제외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한기주가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15일 히어로즈와의 원경경기 도중 우측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던 한기주는 회전근개염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16일 오전 정밀검진을 받은 한기주는 MRI 촬영 결과 우측어깨 회전근개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2~3주 정도 통증치료를 받으며 재활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500m 亞 신기록 세울것"

박태환 로마세계선수권 포부

"장린(중국)이 가져간 아시아 최고 기록을 다시 내 이름으로 갈아치우고 싶습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이 자유형 1,500m 아시아 최고 기록에 대한 욕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박태환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200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에 앞서 출국 하루 전날인 16일 오후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노민상 경영 대표팀 감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대회 준비 상황과 각오를 전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200m, 400m와 1,500m 세 종목에 출전한다.

박태환은 멜버른 세계대회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 1,500m에서 잇달아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박태환은 "200m와 400m에서는 타이틀도 갖고 계속 좋은 기록을 내왔다. 이번에는 1,500m에서도 좋은 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올해 6주씩 두 차례 실시한 미국 전지훈련에서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1,500m 금메달리스트 우사마 멜룰리(튀니지)와 함께 훈련했던 박태환은 "멜룰리와 같이 결승에 올라가 경쟁하면 내 최고 기록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기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메달 가능성이 큰 자유형 200m나 400m보다 1,500m 기록 단축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로 14분55초대의 기록을 계속 못 깨 아쉬웠다. 이번에는 욕심내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바라기도 응원해요

16일(한국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96회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대회 11번째 구간(192km)에서 참가자 한무리가 노란색의 해바라기 밭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수영 말아톤' 김진호 배영 200m 세계新

글로벌게임즈 2009 금메달

한국 장애인 수영 스타 김진호(23)가 국제대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16일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에 따르면 김진호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체코 리베레츠에서 열린 글로벌게임즈 2009에서 배영 200m에 출전해 2분21초95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걸었다.

2005년 9월 자신이 세웠던 종전 최고 기록 2분24초49를 2.54초나 앞당겼다. 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종합대회인 이 대회에는 40개국에서 1천460명이 참가신청서를 냈으며, 한국은 9개 종목 중 수영과 풋살 두 종목에 1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김진호는 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 배영 100m에서 동메달을 추가 획득했고 안진용, 정양묵, 조원상과 나선 계주에서도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보탰다.

개인혼영 400m에서 5분01초64의 세계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한 정양묵은 개인혼영 200m와 접영 200m 등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한국이 획득한 금메달 6개 중 세 개를 혼자 쓸어담았다.

한국은 수영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땄다.

풋살에서는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잇달아 무릎을 꿇고나서 브라질을 5-0으로 꺾어 9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브리티시 오픈 이모저모

바람 잠잠… 코스레코드 깨질까

○…제138회 브리티시오픈이 열리는 동안 온화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나오면서 역대 최저타 기록 경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브리티시오픈 18홀 최저타 기록은 1977년 마크 헤이스와 1986년 그렉 노먼(호주)이 세운 63타인데 두차례 모두 이번 대회가 열리는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턴베리 링크스 에일사 코스(파70·7천204야드)에서 작성됐다.

베테랑 케니 페리(미국)는 "바람만 심하게 불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아직은 바람이 심하지 않다"며 코스레코드 경신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코스레코드를 갖고 있는 노먼은 "1977년을 제외하고 이 코스에서 60대 중반 타수의 스코어가 나온 적이 거의 없다."며 기록 경신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디어 클래식에서 2위에 올라 브리티시오픈 출전권을 따냈던 브렛 퀴글리(미국)는 얼마전 교통 사고를 당해 아내를 잃은 동료 골퍼 크리스 스미스 때문에 출전을 포기했다.

스미스의 아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코틀랜드행을 포기하고 대신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PGA 투어 US뱅크 챔피언십에 나가기로 했다.

퀴글리, 아내잃은 동료위해 출전 포기

취리히 클래식 우승자 제리 켈리(미국)도 고향 위스콘신주에서 열리는 대회를 외면하지 못해 디 오픈 출전을 포기했다.

세계 골프팬들의 이목이 스코틀랜드에 집중되면서 초라한 대회가 되어버린 US뱅크 챔피언십에는 재미교포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 오승준(27)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즈 인기 日 새별 이시카와에 밀려

○…출전하는 대회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타이거 우즈(미국)지만 이번에는 동반 플레이를 펼치는 일본 골프의 새별 이시카와 료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이다. 대규모 취재진을 꾸린 일본 언론들이 이시카와를 집중 취재할 것으로 예상돼 대회조직위원회는 최고의 흥행카드를 만들어 놓고도 선수들의 경기 진행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영국왕실골프협회 피터 도슨 사무총장은 "동반 플레이를 하는 우즈와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들도 재미있는 조 편성이라고 만족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